



# 화요일아침예술학교

## 1 설립 취지와 학교 운영

매일 매일 꽃처럼 아름답게 희망을 열며 살자는 취지의 ‘화요일아침예술학교’는 절망과 실의에 빠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 천주교 서울대교구 홍문택 베르나르도 신부(2017.4.27.선종)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미술의 꿈을 접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사재를 봉헌(2007.3.2.)하고, 교구의 동의를 얻어 2011년 3월 2일 설립한 학력인정 대안학교(각종학교)입니다.

화요일아침예술학교는 고등학교 일반교육과정과 함께 학교자율과정으로 미술심화교육과정을 전액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적 소양을 바탕으로 하는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기숙형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소속의 화요일아침예술학교는 어려운 청소년에게 꿈을 심어주고자하는 분들의 기부, 약17,000여명 후원회원들의 지속적인 후원, 재능 기부 교사들이 참여가 함께하는 사랑과 나눔의 학교입니다.

## 2 학교 안내

학 교 명	화요일아침예술학교
학 교 장	김성훈 스테파노 신부
법 인 명	(재) 서울가톨릭청소년회
법인 이사장	정순택 베드로 주교
학력인가설립일	경기도교육청 2011년 02월 22일
시설 규모	본교 (대지: 6,840㎡, 건물: 1,877.97㎡)
학교 주소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양원로 268번길 106-125
홈페이지 주소	<a href="http://www.flowerdaymorning.com">http://www.flowerdaymorning.com</a>
연락처 / FAX	행정실 070.8891.3830 / 교무실 070.8891.3831 / FAX 031.833.0090

## 1. 화요일아침예술학교는

- 재단법인 ‘서울가톨릭청소년회’ 소속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살핌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꿈을 키워주는 “**희망의 학교**”입니다.
- 고등학교 교과과정과 미술전반에 걸쳐 교육을 받는 학력인정 고등학교입니다. 학생들은 입교 후 전원 기숙사 생활을 통해 자립생활과 남을 배려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익혀가는 “**인생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 한 학년에 8~13명씩, 전교생 40명 미만으로 따뜻한 보살핌을 받는 “**가정적인 학교**”입니다.
- 가톨릭신자와 일반인들의 나눔 기부와 교사들의 재능기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모여 함께하는 “**사랑의 학교**”입니다.

## 2. 학생 현황 (2018년 2학기 기준)

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계
인원	4명	10명	10명	24명

## 3.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본교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전인적 성장의 기반위에 개성을 추구하는 사람.
- ② 기초능력을 토대로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 ③ 폭넓은 교양을 바탕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 ④ 우리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
- ⑤ 민주시민의식을 기초로 공동체의 발전에 공헌하는 사람.
- ⑥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신앙인.

## 3. 교육 목표

본교의 교육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초대된 청소년들이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 능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 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으로 심신이 건강한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하고 성숙한 자아의식을 가진다.
- ② 학문과 생활에 필요한 논리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익힌다.
- ③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기능을 익혀,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는 능력을 기른다.
- ④ 우리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 속에서 발전시키려는 태도를 갖춘다.
- ⑤ 국가 공동체 형성과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세계시민으로서의 의식과 태도를 가진다.

#### 4. 교육 과정

본교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②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국가수준의 고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과 경기도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경기도교육청 고시 제2010-22호)에 의거하고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089호, 2009. 11. 5)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교실정에 맞게 구성한 것입니다.

- ①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 보통교과와 디자인, 회화, 소묘, 도예 등 미술관련 전문교과 과정을 교육합니다.
- ② 가톨릭 이념과 윤리, 예절 등을 통한 인성교육과 전문교과과정을 통해 다양한 재능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합니다.

##### (1) 화요일아침예술학교 2018년 교육과정

학 년	교육과정
1학년	고등학교 일반교육과정 + 미술 기초교양 교육과정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일반교육과정 + 미술 전공심화 교육과정

##### (2) 교육과정 편제

보통 교과	미술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국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문학, 고전읽기, 수학, 수학 I, 수학 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영어, 영어 I, 영어 II, 실용영어, 진로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생활과윤리, 사회·문화, 통합과학, 생명과학 I, 체육, 운동과건강, 스포츠생활, 한문 I, 진로와직업, 종교학, 미술감상과 비평, 미술창작	미술사, 드로잉, 평면조형, 입체조형, 매체미술, 컴퓨터그래픽, 미술전공실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118단위	86단위	24단위
합계 228단위		

## 4. 교훈, 교표, 교화, 교목

교훈	<p>人生 예술人</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따뜻하게</li> <li>- 창조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행복하게</li> </ul>
교표	
<p>교화</p> <p>수선화</p> 	<p>수선화의 속명인 나르키수스(Narcissu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나르시스(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미소년 나르시스는 아름다운 용모 때문에 요정들에게 사랑을 받지만, 어떤 요정에게도 눈길을 주지 않았다. 상처받은 한 요정이 여신에게 나르시스가 지독하게 가슴 아픈 사랑을 알게 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 여신은 그 부탁을 들어주어 나르시스는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에 반해서 사랑에 빠졌고, 잡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상사병을 앓다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만다. 그가 죽은 후에 연못 주변에 나르시스의 혼이 한 송이 수선화로 피어났다. 청순함과 순결함.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自己愛)를 뜻하는 학교 교화(校花)</p>
<p>교목</p> <p>자작나무</p> 	<p>자작나무는 태우면 자작자작 소리가 난다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하며 뜻은 &lt;당신을 기다립니다&gt;이다.</p> <p>생장이 빠르고, 연한 가지와 흰 나무껍질 때문에 자작나무는 고대 게르만인 사이에서 생명, 성장, 축복의 나무라고 생각되었다. 이는 여신 프리그(Frigg)의 성수로서 나뭇가지를 문이나 창에 달아서 사랑이나 기쁨의 표시로서 입구에 장식되는 것으로 표현되었다. 또한 오월수(五月樹)로서 전나무를 압도하고 있는 것은 독일어Maie하는 말이 &lt;오월주&gt;외에 &lt;자작의 어린가지&gt;를 나타내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자작은 봄맞이의 나무로서 어령강림제에도 장식되었다. 어린가지로 여자나 가축의 몸을 두들기면 다산을 약속하기 때문이 북부 독일에서는 젊은이가 여인을 두들긴 후에 가지를 선물하는 풍습도 있었다. 또한 양배추 밭의 해충을 구제하거나 번개방지나 가축의 병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p> <p>사랑과 기쁨. 풍요로움. 건강의 상징이고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이는 나무로서 꽃처럼 예쁘게 살고 자연과 이웃, 즉 모든 생명체를 위해 배려하는 학교 이념과 일치되는 나무이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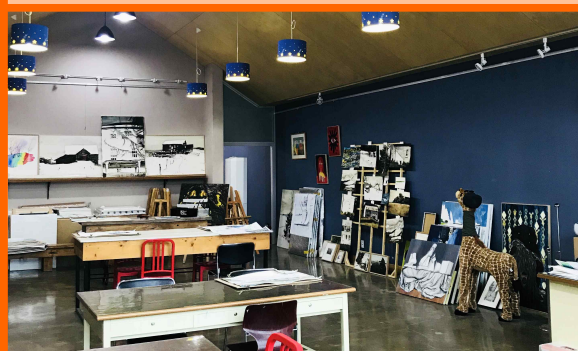
## 5. 학교 시설



<강의실 전면 사진>



<학교입구 사진>



<미술실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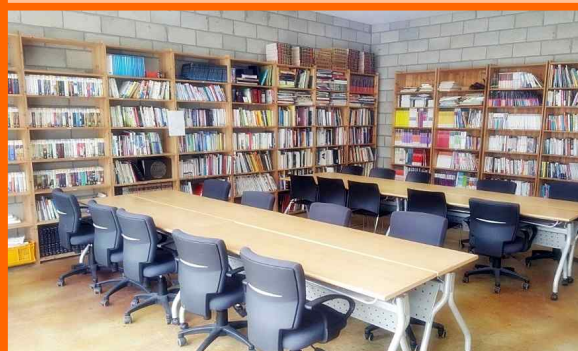
<강의실 사진>



<컴퓨터실 사진>



<연학실 사진>



<도서관 사진>



<대 강의실 사진>